

조선, 새로운 나라를 꿈꾸다

Joseon, Dreaming the Modern Korea

안창모 |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을미사변-아관파천-대한제국

1895년 국모 시해라는 일본의 도발은 조선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았다. 을미사변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운영의 한 축이 사라짐과 동시에 고종의 큰 결심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압박이 국모 살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면서, 고종은 자신의 거처를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고, 이후 친일파를 숙청하는 등 정치쇄신을 꾀하는 동시에 새로운 나라의 밑그림을 그렸다. 황제국! 대한제국의 출범이었다.

대한제국의 출범은 국가 체제의 변화지만 조선 개국이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수도의 공간구조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고종은 1896년 2월 11일 러시아 공사 베베르(Karl Ivanovichi Weber, 1841-1910)의 지원 하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직후인 2월 16일에 다음과 같은 명을 내렸다.

“짐이 왕조의 500년에 한 번 변하는 때를 당하고 우내만방(宇內萬邦)의 개명하는 시운을 만나 짐이 정력을 가다듬고 정사를 도모하여 부강하게 할 대책을 강구한 지가 몇 해 되었으나 국가가 다난(多難)하여 그 효과가 없다. 이제부터 나라에 이롭고 백성들을 편하게 할 방도를 더욱더 강구하여 나의 백성들과 함께 문명(文明)한 경지에 올라 태평한 복을 누릴 것이니, 모든 나의 신료와 백성들은 짐의 뜻을 잘 본받고 짐의 사업을 도와 완성하라. 전날 며칠 안으로 대궐에 돌아갈 뜻을 선시(宣示)하였으나 경운궁(慶運宮)과 경복궁(景福宮)을 수리하도록 이미 유사(有司)에 명령하였다. 그 공사가 우선 끝나는 대로 돌아가든지 거처를 옮기든지 확정할 것이니, 너희들 백성들은 그리 알라.”

경운궁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는 순간이다.

고종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일국의 왕이 외국 공사관에 몸을 의탁한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배웠던 아관파천의 주인공의 모습이 아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당면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주인공만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다.

아관파천 직후에 신속하게 경운궁에 대한 수리를 명한 것은 아관파천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파천이후의 계획이 이미 준비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러시아공사관에 기약 없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필요한 시기 동안만 거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경복궁과 함께 경운궁의 수리를 명한 것은 자신이 돌아갈 거처가 경운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경운궁은 1593년 임진왜란으로 도성 내 궁궐(경복궁과 창덕궁)이 소실됨에 따라, 의주에서 돌아온 선조가 도성에서 거처할 곳으로 월산대군의 사저가 선택되어 임시행궁으로 궁궐의 위상을 갖게 되었고, 후에 경운궁이라는 궁호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인조가 창덕궁으로 이어(移御)하면서, 경운궁이 해체되어 궁궐의 위상을 잃었다. 궁궐이 해체되면서 경운궁 내 대부분의 전각과 땅이 원 주인에게 돌아갔지만, 미증유의 국난을 극복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던 석어당(昔御堂)과 인조 자신이 즉위했던 전각인 즉조당(卽祚堂)만은 남겨놓았다.

이후 300년 가까이 옛 경운궁 터에는 석어당과 즉조당이 남아 있었는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두 개의 전각을 중심으로 경운궁의 수리를 명함에 따라 경운궁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했다. 두 전각이 새 경운궁의 모태가 된 것이다.

경운궁이 우리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 두 차례였는데 두

차례 모두 일본으로 인한 것이었으니, 경운궁과 일본은 악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 경운궁은 300년 전의 경운궁과는 달랐다. 1883년 미국공사관이 정동에 자리 잡은 이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공사관이 옛 경운궁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운궁 북쪽에는 영국 공사관, 남쪽에는 독일 공사관, 서쪽으로 가깝게는 미국 공사관이 위치해 있고, 멀리는 프랑스 공사관과 러시아 공사관이 위치해 있었다. 경운궁은 이들에 의해 둘러싸인 형국이었다. 고종이 옛 경운궁을 정궁으로 삼음에 따라 마치 고종은 경운궁이 서구 열강의 지원 하에 일본에 대항하는 듯한 공간적 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서구 열강 중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가 일본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고종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가 유일했다. 이것이 고종이 일본의 압박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이유였다.

고종은 1896년 2월부터 1896년 2월까지 1년간 러시아공사관에 머물며 새로운 나라를 구상했다. 새로운 국가 체제를 구상하는 동시에 근대국가의 조건을 하나 둘 갖추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정궁을 옮기는 작업과 동시대 근대국가의 화두였던 위생적인 도시환경의 구축이었다.

근대 도시궁궐 경운궁

을미사변을 계기로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경운궁은 조선의 궁궐이 아닌 제국으로 새출발한 한국(韓國)의 황궁의 위상을 가졌다. 따라서 근대기에 지어진 제국의 정궁을 고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덕수궁의 입지를 살펴보면 덕수궁이 경복궁을 비롯한 창덕궁, 경희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경복궁이 북악, 창덕궁이 응봉 그리고 경희궁이 인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경운궁은 산을 배경을 하고 있지 않다. 주변에 산이 없을 뿐 아니라 경복궁이나 창덕궁보다 500여년 늦게 도심 한 복판에 세워진 탓에 궁궐의 경계도 반듯하지 않았다. 경복궁이 광화문을 정문으로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덕수궁의 대한문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덕수궁이 경복궁이나 창덕궁과는 달리 조선이 개국한지 500년이 지나서 시가지화가 완성된 도심 한 복판에서 세워졌기 때문이다.

경운궁이 서울을 조성할 당시 궁궐의 입지와 영역이 정해져 있던 궁궐과는 존재하는 방식이 달랐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선이 개국한지 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워진 덕수궁은 조선이 아닌 '한'제국의 황궁으로 지어졌고, 여느 궁궐과 달리 도심 한 복판에 세워진 도심궁궐이라는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바로 이점이 덕수궁의 정체성의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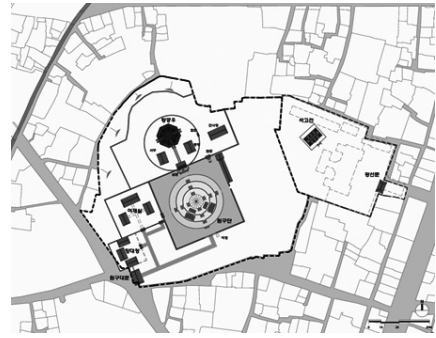


그림 1. 환구단 배치도



그림 2. 환구단 전경

경운궁으로의 환궁과 제국 건설의 행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떠나 옛 경운궁으로 거처를 옮긴 것은 1897년 2월 20일이었다. 임금이 머문다는 것은 곧 옛 경운궁이 다시 궁궐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이 개국한 이래, 정궁과 이궁의 2개 궁궐을 운영하는 양궐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옛 경운궁이 정궁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전의 정궁이었던 경복궁과 이궁이었던 창덕궁 중에서 하나의 궁이 궁궐의 위상을 잃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갔다. 고종은 황제의 위에 오르라는 주위의 권유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불가하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황제국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다. 재야에서 칭제 요구가 빗발치던 무렵 왕실의 위상을 높이는 요청의 하나로 교전소 설치를 주장했던 내부대신 남정철에 의해 1897년 6월 3일 조선왕조 역대 임금의 치적을 정리하기 위한 역사편찬기관인 사례소가 내부에 설치되었고, 후에 사례소 직원이었던 장지연에 의해 대한제국의 '대한예전'과 '황례'도 편찬되었다.¹⁾

1897년 8월 17일에는 새로운 연호가 만들어졌다. 1896년 친일내각이었던 김홍집 내각에 의해 만들어졌던 '건양'이라는 연호를 버리고 '광무'를 새로운 연호로 제정했다. 부국강병의 의지를 담은 '광무'를 만든 후 8월 16일에는 연호 개정을 알리는 환구제(圓丘祭)를 지냈다. 이때의 환구제는 대한제국기의 환구단이 아닌 조선 개국후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제단인 남단²⁾에서 이루어졌다. 황제만이 치를 수 있는 환구제를 대한제국 출범이전에

1) 한영우, 명성황후 제국을 일으키다, 2006, 효형출판사

2) 남단은 현 미군 병영인 코이너캡트 안에 위치해 있다./글쓴이 주.

지냈다는 것은 칭제 요구에 대한 공개적인 반응이었으며, 칭제에 대한 의지를 굳혔음을 의미한다.

1897년 9월 25일에는 환구단 건설이 결정되었고 공사는 10월 2일에 시작되었다. 장소는 남별궁이었다. 남별궁은 태종의 둘째 딸 경정공주와 남편 평양부원군 조대립의 집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 사신들의 거처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따라서 남별궁에 환구단을 지은 것은 제국건설에 대한 의지와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환구단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과 신위를 모시는 '황궁 우'를 비롯한 부속시설로 구성되었지만, 대한제국 출범 당시에는 제단만이 존재했다. 황궁우가 지어진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인 1899년이었다.

고종이 칭제를 승낙하고 조선의 국체를 대한제국으로 새롭게 출발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1897년 10월 3일이었다. 고종은 “짐이 부덕한 몸으로 34년간 임어하는 동안 어려운 때를 만나 마침내 만고에 없는 변고까지 있었다. 또, 정치가 뜻대로 되지 않아 근심과 걱정이 눈에 가득차고 부끄러운 생각에 진땀이 흘렀다. …진신들이 편지로써 청하고, 대신들이 연석에서 청하고, 6군 만민이 복합하여 청하고, 상하가 서로 통하고 설 틈이 없이 머무르고 있으니, 대동의 정을 도저히 막을 수 없도다. 깊이 생각해 보니 부득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큰일이니 만큼 그 예의를 짐작하여 행해야 할 것이다”. 며 칭제를 승낙했다.

칭제를 결심한 고종은 10월 7일 경운궁 즉조당의 이름을 태극전으로 바꾸고, 10월 8일 사직단의 신위판을 태사와 태직으로 격상시켰다. 10월 11일 오후 2시에는 환구단을 사전 시찰하였고, 10월 12일 새벽 드디어 황제에 올랐다. 고종이 황제의 위에 오르던 날의 모습에 대해서는 1897년 10월 12일 자 독립신문 기사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십일일밤 장안의 사가와 각 전에서는 등불을 밝게 달아 길들이 낮과 같이 밝았다. 가을 달 또한 밝은 빛을 감정 구름 틈으로 내려 비추었다. 집집마다 태극 국기를 높이 걸어 애국심을 표하였고, 각 대대 병정들과 각 처 순검들이 만일에 대비하여 절도 있게 파수하였다. 길에 다니던 사람들도 즐거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정사를 즐겨워하는 마음에 젖은 옷과 추위를 개의치 않고 질서 정연히 각자의 직무를 착실히 하였다.

사람들의 옷이 젖었다는 기사를 보니 하늘에 황제 즉위를 고하던 날, 비가 왔던 모양이다.

황제 즉위식의 모습을 살펴보자.

십일일 오후 두시 반 경운궁에서 시작하여 환구단까지 길가 좌우로 각 대대 군사들이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었다. 순검들도 몇 백 명이 틈틈이 별려 서서 황국의 위엄을 나타냈다. 좌우로 휘장을 쳐, 잡인 왕래를 금하였고, 옛적에 쓰던 의장 등물을 고쳐 황색으로 만들어 호위하게 하였다. 시위대 군사들이 어가를 호위하

고 지나갈 때에는 위엄이 웅장했다. 총 끝에 꽃힌 창들이 석양에 빛을 반사하여 빛났다. 육군 장관들은 금수로 장식한 모자와 복장을 하였고, 허리에는 금줄로 연결된 은빛의 군도를 찼다. 옛 풍속으로 조선 군복을 입은 관원들도 있었으며, 금관 조복한 관인들도 많이 있었다.

어가 앞에는 대황제의 태극 국기가 먼저 지나갔고, 대황제는 황룡포에 면류관을 쓰고 금으로 채색한 연을 탔다. 그 뒤에 황태자가 곤룡포를 입고 면류관을 쓴 채 붉은 연을 타고 지나갔다. 어가가 환구단에 이르자 제향에 쓸 가색 물건을 둘러보고 오후 네 시 즈음에 환어하였다.

십이일 오전 두시 다시 위의를 갖추어 황단에 가서 하느님께 제사하고 황제 위에 나아감을 고하였다. 황제는 오전 네 시 반에 환어하였다. 동일 정오 십이시에 만조백관이 예복을 갖추고 경운궁에 나아가 대황제와 황태후, 황태자와 황태비에게 크게 하례를 올렸고, 백관들이 크게 ‘황제폐하 만세’를 불러 환호하였다.

‘한’제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은 1897년 10월 13일이었다. 고종은 반조문(頒詔文)에서 자신을 ‘봉천승운황제(奉天承運皇帝)’³⁾라 칭하고, “짐은 생각건대, 단군과 기자 이후로 강토가 분리되어 각각 한 지역을 차지하고는 서로 패권을 다투어 오다가 고려 때에 이르러서 마한 진한 변한을 통합하였으니, 이것인 삼한(三韓)을 통합한 것이다. 우리 태조가 왕위에 오른 초기에 국토 밖으로 영토를 더욱 넓혀 북쪽으로는 말갈의 지경에 이르러 상야, 가축, 비단을 얻게 되었고, 남쪽으로는 탐라국을 차지하여 굴, 유자, 해산물을 공납으로 받게 되었다. 사천리 강토에 하나의 통일된 왕업을 세웠으니, 예악과 법도는 당노와 우순을 이어받았고, 국토는 공고히 다져져 우리 자손들에게 만대토록 길이 전할 반석 같은 터전을 남겨주었다. 짐이 덕이 없다 보니 어려운 시기를 만났으나, 상제가 돌봐주신 덕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와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 군사들과 장사꾼들이 한 목소리로 대궐에 호소하면서 수십 차례나 상소를 올려 반드시 황제의 칭호를 올리려고 하였는데, 짐이 누차 사양하다가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올해 9월 17일 백악산(白嶽山)의 남쪽에서 천지에 고유제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국호를 ‘대한’으로 정하고 이해를 광무 원년으로 삼으며, 종묘와 사직의 신위판을 태사와 태직으로 고쳐 썼다. 왕후 민씨를 황후로 책봉하고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하였다. 이리하여 밝은 명을 높이 받들어 큰 의식을 비로소 거행하였다. … 아! 애당초 임금이 된 것은 하늘이 도움을 받은 것이고, 황제의 칭호를 선포한 것은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에 부합한 것이다.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며 교화를 시행하여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니, 세상에 선포하여 모두 듣고 알게 하라.”고 하였다.

3) 조서에 쓰는 황제의 자칭(自稱). 곧 천명에 따라 황제의 운을 계승하였다는 의미임.



그림 3. 조선시대 도시의 중심(좌)과 대한제국기 도시의 중심(우)

드디어 ‘한’제국이 출범한 것이다.

미국의 호레이스 알렌 공사, 러시아의 알렉시 스페예르 공사, 프랑스의 콜랭 드 플라시 공사, 독일의 크린 영사, 일본의 가토 마스오 공사 등이 황제 즉위를 축하하며 알현을 청하였다. 이제 대한제국은 당당한 제국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경운궁 중심의 도시구조 개편

제국의 출범으로 경운궁이 황궁이 되었고, 서울의 도시구조는 황궁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조선시대의 수도 한양의 상징적 중심은 경복궁과 육조거리였지만, 도시기능의 중심은 종로와 남대문로가 교차하는 운중가였다. 그러나 ‘한’제국이 출범하면서 상징적 중심이 경복궁에서 경운궁으로 옮겨졌을 뿐 아니라 기능적 중심도 운중가에서 대한문 앞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에는 상징적 중심과 기능적 중심이 일치하지 않았으나, 대한제국기에는 수도의 상징적 중심과 기능적 중심이 일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도시구조의 변화는 경운궁의 건설로 촉발되었다. 경운궁이 제국의 황궁으로 부활하였지만, 나라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관아는 육조거리에 남아있었기에 황궁과 행정부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오늘날 태평로의 개설로 이어졌다. 한편, 남별궁에 환구단이 건설되면서 오늘의 소공로가 새로 개설되었는데, 신설된 소공로는 남촌을 대한문 앞으로 연결시켰을 뿐 아니라 남대문 상권을 대한문과 정동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루트가 되었다. 이렇게 재편된 경운궁 중심의 도시구조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서울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대한제국의 출범과 경운궁의 건설은 조선 개국 이래 지속되었던 도시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현대도시 서울의 근간이 되었다. 경운궁과 대한문 앞 광장이 근대한국의 원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제국의 얼굴, 석조전 건설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는 동안 환궁에 대한 각계의 요구를 물리

쳤던 고종은 해를 넘겨 경운궁으로의 이어를 단행하면서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석조전의 건설이었다. 1897년 4월 6일자 독립신문 기사에는 ‘영국 사람 브라운씨와 통변관 최영하 씨가 3월 15일 경운궁에 들어가서 궁 안에 지형을 실측하고 나왔다더라’는 기사가 실렸다. 무엇을 위한 실측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었지만, 이후 전개되는 상황과 기록을 살펴보면 총세무사(總稅務司)⁴⁾ 맥리브 브라운(John McLeavy Brown, 柏卓安, 1835-1926)의 실측 행위가 석조전을 짓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석조전 건축은 브라운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대한제국 출범을 위해 『대한예전(大韓禮典)』을 발간하는 등 황제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1897년 10월에는 환구단(圓丘壇)⁵⁾이 만들어졌고, 1897년 10월 12일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 의식이 행해졌다. 황제국의 상징적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석조전이 서양의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는데 반해, 또 다른 상징인 환구단의 경우 중국의 예를 모델로 삼았다. 이 대립적인 양상은 오랜 세월 동아시아 전통의 강한 관성 속에서 새롭게 서구 제국을 모델로 하는 근대국가를 지향했던 조선이 처했던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 출범 이후 고종 황제는 다른 나라의 예에 따라 황제가 군을 통솔하는 대원수, 황태자를 원수로 하는 군부제도를 개편하였으며, 이때 원수부(元帥府)가 건축되었다. 원수부는 대한문 우측에 건설되었는데,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 2개 동으로 구성되었다. 2개 동 그 사이에는 궁궐 밖으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었다. 동 시기에 경운궁에는 궁궐의 호위를 위한 망대가 세 곳에 세워졌다. 이들 건축물은 특별한 건축양식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벽돌로 지은 실용적인 서양식 건축물이었다.

석조전을 짓기 위한 측량이 1897년 3월에 행해졌고, 상해에서 활동하던 영국인 건축사 하딩(J. R. Harding)에게 설계가 의뢰되었는데, 하딩은 석조전을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유럽은 물론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디자인했다. 1900년 5월 26일자 미국 저널 『American Architecture and Building News』에는 석조전의 모형 사진이 게재되었으며, 같은 해에 석조전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석조전이 유럽 건축에 뿌리를 둔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디자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조전에는 유럽건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베란다가 건물 전면은 물론 양 측면에 설치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석조전 뿐 아니라 덕수궁에 남아 있는 양관인 정관현(靜觀軒)과 중명전(重明殿, 舊 修玉軒)에도 모두 정면과 양 측면에 서양식 베란다가 디자인되고 설치되었다는 사실이다.

세 개의 건물은 모두 서양 건축양식으로 지어졌지만, 건축적 특징은 판이하게 다르다. 정관현이 이국적 모습에도 불구하고 곳곳

4) 조선 말기 개항장의 관세를 관장하기 위한 해관(海關)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관직.

5) 풍작과 비를 기원하는 국가행사로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제단.

에 전통 건축과 장식 요소가 사용된 한양 절충식 건축으로 지어진 반면, 석조전은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건축으로 지어졌고, 중명전은 실용적인 벽돌조 건축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건축 양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건물에 모두 베란다가 정면과 양 측면에 설치된 이유는 뭘까?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 밖에서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의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기 시작했고, 그곳에 지어진 신고전주의 건축에서 베란다가 언제, 어디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신고전주의 건축이 유럽 이외의 지역에 지어지기 시작한 것은 콜럼버스에 의한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대항해 시대에 개척된 식민지에서다. 대항해 시대 후반에 식민지 개척에서 큰 성과를 냈던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였던 인도와 인도차이나 지역에 지은 지배기구 건축이나 공공 건축은 예외 없이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신고전주의 건축의 본거지인 유럽과 인도와 인도차이나는 기후가 전혀 달랐다. 고온 다습했던 이들 식민지에서 유럽풍의 건물이 온전하게 작동될 수 없었고, 현지의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햇볕을 피하고 통풍을 도와줄 수 있는 건축적 해법이 발명되었다. 베란다가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베란다가 건물 전체에 둘러쳐진 새로운 건축양식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건축양식을 식민지에서 만들어진 건축양식이라는 의미를 담아 식민지건축(colonial architecture)이라 불렀다. 그러나 식민지 건축이라는



그림 4. 석조전 모형사진



그림 5. 돌로 지은 신고전주의 양식의 석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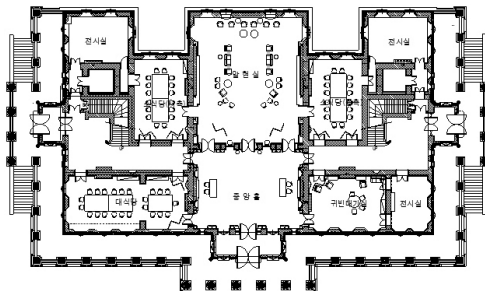


그림 6. 석조전 1층 평면도(복원후)



그림 7. 석조전 내 접견실



그림 8. 석조전 중앙홀 일부

용어가 일제의 식민지를 경험한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잘 못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우리는 이를 베란다가 건물 외부에 둘러쳐진 건축이라는 뜻에서 베란다 건축이라 부르고 있다.

한편, ‘돌로 지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석조전’이라는 이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궁궐의 주요 전각이 전각의 용도에 따라 의미 있는 이름이 붙임으로써 전각에 정체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보면, 일국의 정전으로 지어진 건물에 ‘돌로 지은 집’이라는 뜻을 가진 ‘석조전’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이상한 이름이 아닐 수 없다.

석조전이라는 이름의 작명에 대한 수수께끼는 우리의 전통적인 집짓기가 나무와 흙으로 지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우리 역사에서는 돌로 집을 짓는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돌로 지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건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동시대에 서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을 택한 것은 곧 서구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새롭게 출범하는 대한제국이 서구를 모델로 하는 근대국가일 뿐 아니라 서구와 같은 국가체제를 운영할 수 있음을 과시하는 상징적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의 첫 건축프로젝트로서 시작된 정인인 석조전의 이름과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의 모습은 그 자체로 대한제국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다.

석조전은 단층으로 지어지는 전통건축과는 달리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지어진 탓에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석조전이 1910년에 준공된 탓에 비록 호아궁의 정전으로 사용되지는 못하였지만, 태황제가 황위에서 물러난 후 덕수궁에 머물면서 석조전을 사용한 용도를 보면, 침전과 편전의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석조전은 1층에 접견실 및 홀, 2층에는 중앙 홀과 황제 황후의 침실과 거실 그리고 지층에는 부속실 등이 배치되었다. ㉑